

익산 세계유산서 다양한 공연 펼쳐진다

6월까지 매주 토요일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 · '백제왕궁 달빛공연' 진행

익산시가 세계유산 유적지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으로 화사한 봄날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미륵사지와 백제왕궁(왕궁리유적)에서 매주 토요일 다양한 공연을 진행한다.

미륵사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룩스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주관으로 클래식 중심의 재즈, 뮤지컬, 대중음악 등 폭넓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백제왕궁(왕궁리유적)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백제왕궁 달빛공연' 공연이 펼쳐진다. (사)세종전통예술진흥회 전북지부가 주관해 국악을 중심으로 한국무용, 퓨전 국악, 국악과 클래식 콜라보 공연 등을 펼친다.

시는 문화재 활용 사업을 통한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자랑스런 세계유산의 가치를 홍보하고 '무왕의 도시 백제왕도 익산'에 대한 역사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익산 방문의 해와 역사문화도시 지속 발전을 위해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며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문화재 가까이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좋은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와 '백제왕궁 달빛



익산시는 오는 6월까지 미륵사지와 백제왕궁(왕궁리유적)에서 매주 토요일 다양한 공연을 진행한다.

공연'은 야외 공연으로 기상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관 단체인 룩스필하모니 오

케스트라(luxephil@gmail.com), (사)세종전통예술진흥회 전북지부(070-4197-9661)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우리놀이 전용 체험공간 '놀이집' 시범운영

한국전통문화전당, 내년 3월까지 놀이 체험 · 놀이꾸러미 등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은 우리놀이 전용 체험공간인 '놀이집'을 내년 3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놀이집'에는 ▲화가투, 고누, 쌍륙, 철교 등 실내 우리놀이와 ▲안경놀이, 8자놀이, 이랑타기, 달팽이놀이 등 실외 우리놀이가 있다.

또한 전통의 우리놀이를 현대의 보드게임으로 재구성한 열두띠 윷놀이, 가로세로 투호놀이, 돌아돌아 대한민국 등의 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당을 방문한 관광객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투호, 비석치기, 제기 등도 준비했다.

특히 '놀이집'은 전당의 야외마당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우리놀이를 대여할 수 있는 '놀이꾸러미'를 운영한다. '놀이집'에서 운영하는 20여종의 놀이 콘텐츠 중 선택해 돛자리와 함께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당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우리놀이의 생활화 · 대중화 · 보급화를 위해 한옥마을에 '우리놀이터 마루달'을 운영하고 있다.

상설 프로그램 외에도 세시풍속을 연계한 행사 등을 진행, 누적 방문객(4월 3일 기



준) 4만1천여 명이 찾았다. 김선태 원장은 "실내의 우리놀이 전용 체험공간인 '놀이집'에서 놀이의 진수를 맛볼 수 있길 바란다"며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 더 수정 · 보완할 내용은 없는지 검토 후 본격적 개관에서는 더욱 뛰어난 놀이 콘텐츠로 시민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놀이집'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체의 현장체험학습도 유 · 무료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63-281-1546)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 올해의 책' 독서 릴레이 첫 주자 모집

시, 24일까지 선착순 150명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에서 오는 8월 말까지 '전주 올해의 책' 독서 릴레이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22 전주 올해의 책' 독서 릴레이에 참여할 첫 주자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독서 릴레이는 △햇빛전쟁(이순미 글 · 이영환 그림, 보리빛소어린이) △순례 주택(유은실 저, 비룡소) △달뜰개(최기우 저, 평민사) 등 전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총 3권의 책을 5인

이상이 릴레이로 읽어나가는 활동이다. 선정된 첫 주자에게는 신청 부문 '전주 올해의 책' 한 권이 전달될 예정이다.

첫 주자는 책을 읽은 뒤 전주독서대전 누리집(www.jbook.kr) 내 '독서 릴레이 코너'에 한 줄 평과 다음 주자 알릴, 전달 사진을 남기고 다음 주자에게 책을 전달하면 된다.

2번째 주자도 같은 방식으로 다음 주자에게 책을 전달하고, 마지막 주자는 8월 말까지 가까운 시립도서관으로 도서를 반납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독서대전 유튜브 채널을 구독 한 후 전주독서대전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도서는 11개 전주시립도서관 중 원하는 도서관에서 수령할 수 있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독서 릴레이를 통해 친구, 가족, 동료 등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읽고 소통하는 일상 속 책 읽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 전주 올해의 책'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 일원에서 열리는 '2022 전주독서대전'과 연계해 △100일 필사 △독후감 공모전 △낭독공연 △가족 독서 골든벨 △저자 초청 강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 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문화예술인 무주군서 살아보기 체험으로 무주 정착 도모

문화예술인들이 이달부터 무주군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갖는다.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마을형 문화 예술인 거주 사업을 통한 유희 공간 활용 및 마을 공동체 회복, 농촌문화 향유 등으로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의 무주 정착을 위한 취지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문화예술인들은 적상면 치목마을에 위치한 단풍마을로하스빌영농조합법인(대표 임지혜)에서 이달 8일부터 3개월 동안 거주하게 된다.

이들 문화예술인들은 모두 8명으로 거주하는 동안 적상 치목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정

그림 및 영정사진, 무주풍경사진 전시회와 함께 마을벽화 그리기 활동을 펼쳐 나간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 마을 지역 활력증진과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무주군에 정착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사업을 통해 들어온 문화예술인들은 숙박비, 창작비, 활동재료비 등이 지원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마을의 성씨 上' 책자 발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우리고장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씨 분포 현황과 사라져가는 성씨 문화를 정리, 소개한 책자 '군산마을의 성씨 上'을 발간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이미 지난 1990년도에 발간한 '옥구군지'에서 성씨 분포 현황을 소개했지만 30여년이라는 세월이 지난에 따라 변화한 성씨 현황을 다시 정리했다. 시민들의 뿌리인 성씨를 조사해 소멸돼 가는 군산의 지역사와 향토사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화해 도시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집성촌과 성씨 문화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기획됐다.

군산의 11개 읍면 중 이번 상권에서는 '옥구읍 · 옥서면 · 회현면 · 옥산면 · 옥도면 · 개정면' 6개 읍면의 마을별 성씨 분포 현황을 소개하며, 전반적인 구성은 △읍 · 면 소개, △마을 소개, △성씨 현황, △주요 성씨 소개 등 4개의 주제로 이뤄져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상우 선생은 박물관 객원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2년 동안 마을들을 찾아 자료들을 연구 · 정리했다.

저자는 "성씨 문화는 혈족의 유대감과 조상에 대한 공경이라는 유교적 가치는 물론, 우리 존재의 근원을 살펴볼 수 있는 사회적 · 문화적으로 가치있는 지역문화이다"고 성씨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발간된 책자는 국 · 공립 도서관과 박물관, 읍 · 면 ·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으로 추후 '임피면 · 서수면 · 대야면 · 성산면 · 나포면'의 성씨분포 현황을 정리한 하권을 발간해 지역사 중심 박물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